

# 전북연구원 보도자료 아름다운 山河 응비하는 생명의 삶터, **천년 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  
전북연구원(T.063-280-7100/F.286-9206)  
<http://www.jthink.kr>

• **문의** : 연구본부장 김진석 선임연구위원  
(063-280-7111)

• **담당** : 사회문화연구부 김형오 연구위원  
(063-280-7172)

**보도시점**: 2019년 10월 23일(수)부터

## 정책공유 플랫폼 구축해 국가 공모사업 능동 대응

관광분야 공모사업 선정을 제고 위해 타깃 전략 마련 필요  
시군별 노하우 공유 플랫폼 구축을 통해 지역성장 도모

[ 사진 및 영상자료 : 없음 ]

- 정부의 지방분권이 본격화되는 추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의 주요 공모사업이 단일 사업 위주의 정부 주도형태에서 지자체 주도 사업으로 변화함에 따라 능동적 협력체계의 플랫폼을 구축하여 전라북도의 공모사업 대응능력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전북연구원(원장 김선기)은 ‘공모형 지역관광사업의 전라북도 대응방향’ 주제의 이슈브리핑(210호) 발간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관광생태계 조성을 국가 관광정책의 우선순위로 제시하고 있는 정부정책은 지방정부의 역할론을 강조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전라북도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부문별 공모사업에 능동적인 대응 태도와 능력을 우선적으로 구축하고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 관광개발과 진흥사업을 지역의 새로운 먹거리로 인식하고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사업을 발굴하는 추세는 중복 및 유사 또는 획일적 아이디어 제시로 인하여 향후 지역관광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정부는 이에 따라서 관광시장의 체질을 개선하고 지역별 맞춤형 매력적 관광지를 육성하여 관광객의 지방 분산화, 국토 및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다양한 공모사업을 통해 이를 확산시키고자 한다.

- 이슈브리핑(210호)에서는 국정운영의 핵심요소로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현재 정부의 방침에 따라 관광분야의 중앙 주도형 지원 사업이 시도자율편성사업 성격으로 지방정부에 이양되고 있으나, 대규모 공모사업은 여전히 정부가 직접 운용함에 따라 국가 공모사업의 치열한 경쟁시장에서 지역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공모사업 대응의 능동적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 특히 2020년에는 정부는 서울과 제주 외 외래관광객이 집중될 수 있는 세계적인 관광도시 육성을 목적으로 지역관광거점도시 관련 공모사업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기존 관광지와 유희 관광자원의 재생과 활성화를 목적으로 계획수립부터 운영단계까지 지자체와 협력을 요구하는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공모를 예정하고 있다.
- 이슈브리핑은 전라북도가 국가 공모사업의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정 가능성이 높은 사업의 타깃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연구 결과 ‘지역관광거점도시’ 및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을 집중 공략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 특히, ▲지역관광거점도시는 전주(한옥마을), 익산(백제역사유적지구), 군산(근대역사문화자원)을 대상으로 지역별 특화 콘텐츠를 적극 활용하여 핵심, 전략 및 연계사업의 실천적인 계획 마련이 시급하며, 전라북도의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주장한다.
- 또한,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의 선제적이며 능동적인 대응을 위해 사전 지역관광발전의 마스터플랜과 같은 계획을 시군별로 우선 마련하여 향후 공모사업에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프로세스가 필요하며,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은 전국 대비 높은 선정률을 기록하고 있으므로 도내 시군간 노하우를 공유하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미선정 지역자원의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 김형오 박사(연구책임)는 “전라북도는 2018년 지역방문 관광객이 약 38,093천명으로 양적 성장의 도약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공모사업 중 하나인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에서 전라북도는 전국 대비 약 37%의 높은 선정률을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전라북도와 시·군간 능동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관련 노하우를 공유하고 중복·획일적 사업에서 탈피하는 미래지향적 사업 발굴의 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